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창인



재수 또는 삼수했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수능을 다시 보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나이였습니다. 군 전역 후 대학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다시 수능을 봐야겠다는 결심이 든 이후에는 과연 이 나이에도 내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쳐져있다는 생각, 이 나이에 다시 수능을 본다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이 두려워 선택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온 지금 이 순간에는 재수 결정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와 열정만 있으면 도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재수라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용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끈기, 그리고 열정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또 다른 고민과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험이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기, 끈기, 열정과 더불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공부방법과 생활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부방법과 생활방법

1. 실력을 키우는 공부

1번째 공부방법과 생활방법은 '단순하게 살자'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의미는 생각 없이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계획한 대로, 계획 내에서만 살자는 뜻입니다. 플래너 작성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하는 공부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수험생과 실패하는 수험생과의 큰 차이는 이 계획을 그대로 실현하는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는 플래너에 적혀 있는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군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 자신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그것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니 훨씬 따르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대로 100%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솔직하게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계획은 너무 무리하게 정하고 막상 70% 정도밖에 수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취도도 떨어지고 계획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솔직하게 내가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잘 것 같다고 생각되면 그 시간에 취침이라고 적어놓고, 내가 이 시간에서 이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많이 못할 것 같으면 일부러 학습량을 줄여서 적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매일 계획 수행도가 높아지고 나중에는 최대한 계획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학원이 끝난 뒤 집에서 해야 할 것들과 몇 시에 취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다 정해놓았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단순하게 사는 것만큼 놓치는 시간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공부법과 생활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항상 자신감을 가지자.

재수학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학생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는 크게 나누어서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부 외적인 이유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럼프의 극복방법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공부를 안 해서입니다. 왜 성적이 안 나오는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갖는 방법도 매우 단순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다. 내가 매일 매일 공부를 많이 했는지, 단순히 시간의 절대량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당연히 본인 실력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리 그 순간의 점수가 본인 생각보다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슬럼프 기간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고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은 책상 밖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슬럼프의 시작도 책상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해결법도 책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 안 되는 날에는 하루 쉬어주어야 해, 오늘은 집중이 안 되니까 휴식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자신에게 주는 핑계가 슬럼프의 원인이며 자신감 하락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3. 공부하는 계기를 찾으려고 하지 말자.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한 실수가 계속해서 공부의 계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3시 10분이니까 30분 되면 공부해야지.'부터 시작해서 '진짜 6월 모의고사 크게 망하고 마음 다잡고 다시 출발해야겠다.' 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계기를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도 같은 악습관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부의 계기를 찾는 것만큼 나쁜 핑계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핑계를 찾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공부를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3시 30분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면 되니까 라는 이유로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계기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 다시 재수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재수하면 진짜로 열심히 해야지'로 충분한 공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하기 싫으니까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을 피하자입니다.

종로학원에 있으면서 제 담임선생님은 항상 조희시간에 좋은 글귀나 말씀 등을 알려주셨는데, 그중 기억나는 것이 일본 스모 선수 후타바야마의 목계지덕 일화입니다. 목계지덕이란 스모 선수 후타바야마가 전무후무한 69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70연승 도전에 실패하자 실패의 원인을 목계의 덕에 오르지 못한 것이라고 지인에게 보낸 전보에서 비롯되었는데, 목계의 덕이란 나무로 만들어진 닭과 같이 주변의 상황을 의식하지 않으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초월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제가 수험기간 동안 추구해왔던 것이 이 목계의 경지였습니다. 비록 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재수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지 않으며,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순간에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에 있을 결과에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가 목계의 길을 걸어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